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마음의 벽 · 고정관념 허물때 자유인 돼요

### 15면에서 계속

다. 말하자면 나를 가르쳐서 좀 더 이해롭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인공은 좋은 일, 즐거운 일로도 가르치지만 나쁜 일, 안좋은 일로도 가르칩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야단을 치실때 잘되라고 야단치시지 잘 못되라고 하진 않으시지요. 주인공을 그렇게 살려준다고 믿으세요. 그러나 늘 감사할 일이 아니지요.

### 사회활동과 수행 병행되는지

문: 큰스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스님 저는 사회에서의 성공과 일상 생활에서의 수행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주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란 매우 비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란 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

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법형제회등의 사진을 보건대 법형제회가 사교모임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진정 해탈을 위해선 오직 참선과 봉사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말씀의 것이 무엇때문에 필요인지 답해주셨으면...

답: 절을 하는게 저 법당의 불상을 하는거라고 했지요? 내 한마음 기울여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체제물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지요. 그 몸이, 형상이 내 몸이요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아늑하게 동글러서 내 몸같이 내 마음같이 안다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인위롭게 하나로 갈라놓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생활이요 참선이 아닐까요. 해탈의 길이기도 하구요. 내 말이라는 것도 항상 여러 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보자는 말이 아니

생활을 떠나 따로 수행 없으니  
그냥 먹고 자고 돈벌고 사랑하며  
나와 너를 알고 인생을 알아야

고 수행을 할만한 여유는 더욱 없어보이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지기의 본모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목적이라면 이러한 사회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행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부와 높은 지위를 얻는 것하고는 이러한 생활을 통한 배움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상반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사회생활이 헛된 것이고 불교의 진리와는 상반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이 공부한다고 누가 돈을 벌지 말았나요. 자리에 앉지 말았나요. 다만 거기에 노여가 되어서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 고달리며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노고 고정된게 없고 그저 항상 변화하고 흐르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고정된게 '나'라고 생각하는 실체가 있다고 믿지만 그 '나'조차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금방 이 생각 했다가 금방 저 생각하고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래는 자유인이요 자재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고정된 틀에 묶어놓고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마땅히 크게 되고 높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게 다 욕망이고 집착이란 말입니다. 나를, 내 발목을 묶는 노예의 회사들 같이 말입니다.

그랬어 이 공부하는 것이 그냥 살면서, 먹고 자고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무엇일까요? 되돌아 보고 그러는 가운데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인생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이겠습니까? 생활을 떠나 따로 무엇을 구한다면 누가 하자는 것이요? 또 구한들 뭐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수행이지 생활을 떠나 따로 수행이라는 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 공부는 자유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본래 거칠게 없이 자유인인데 고정관념 때문에, 집착과 욕심, 아만·아상 같은 것 때문에 자유를 잃고 사니 그 자유를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놓고 살라 하는 것이지요. 허무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건 고정된게 하나도 없는 줄 알라는 뜻이지 아예 외면하고 묵살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천도제 필요한 이유

문: 큰스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 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으며 절이 있으며 제과과 제단위에 올려진 사과 배 등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제인가 뭐가

졌습니까.

### 정진 · 좌선 수행의 요체는...

문: 정진이란 대행스님께서 강조하신 주인공에 둘러놓기 작업인가요? 실제 좌선을 수행한다고 할때 잡념이 들어도 그냥 관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좌선 수행의 요체인가요?

답: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하는게 좌선이라고 보십니까? 일체가 들고 나는 그 자리에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환대에 그게 관입니다. 잡념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자리에 들고나는 것이니 놓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잡념이 들어서 안되지' 한다면 놓은게 아니라 잡은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안나오게 하는것도, 나오는 것도 다 그 자리다 하

### 늘 불안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 평소 대행스님을 존경해왔으며 본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대행스님께서는 늘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처이니 널 믿으면 모든 것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중생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늘 긴장하게 됩니다. 무슨일이 일어나지않을까란 걱정등이 인간의 원초적 불안과 맞물려 항상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에 초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행스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정진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정진할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정진해야하나요? 그리고 정진의 마음속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법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진'이란 무엇인가요? 정진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답: 그럼 스님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서울의 한 중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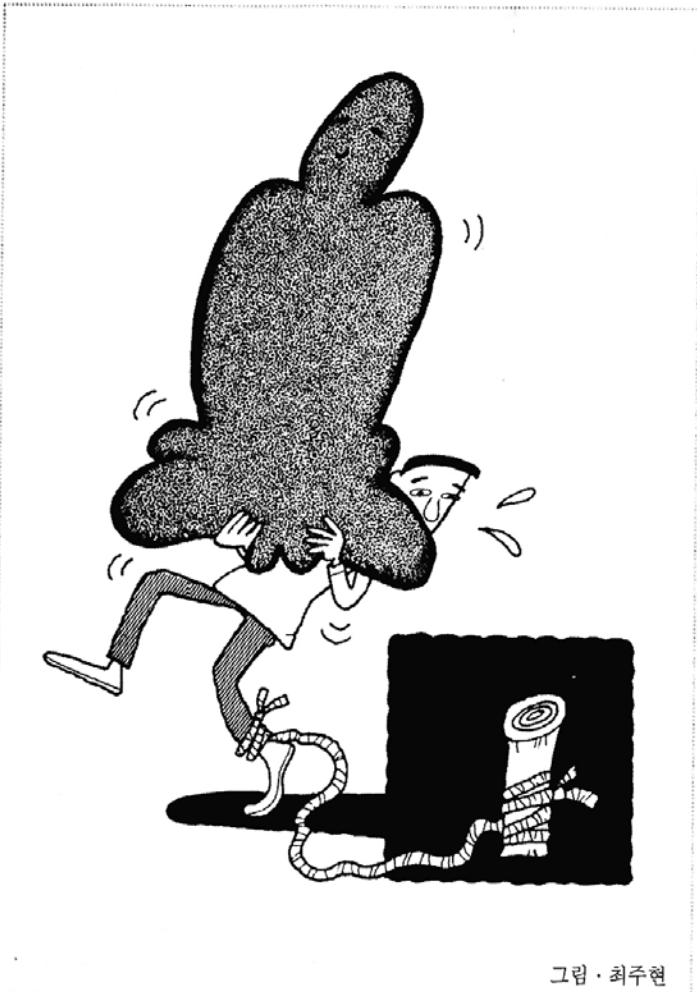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문: 그게 다 끊어부스럼입니다. 본래는 여여하고 그런 것을 자주 이럴까 저럴까 인력을 해 놓으시니 결할 수 밖에요. 발 많은 그리마가 아무 말 없이 잘 가다가도 '어휴, 저렇게 발이 많은데 어떻게 잘 갈 수 있지?' 하니까 그런 끔찍을 못하더라 씬으로 공허히 이생각 지 생각을 지어서 먹지먹지 붙여 놓을 거 뭐란 말입니까?

답: 또 뭘 초연합니까? 본래 초연한데 그냥 나오는 족족 놓고 또 놓는게 정진이니 그리 아세요.

문: 백장선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1.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벗어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부터는 그런 일에는(이사 낱파, 방항 등) 저축을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정말 방항이 안 좋아 못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참, 어느분인지 몰라도 잘못 생각 하고 있군요. 주인공 자리에서 막는 다니 말입니다. 아니,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고 어디 한군데 도랑 아닌데가 없고 부처 마음이 내마음이지요 내 마음이

도 살아야 하지는 이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문: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공부의 재료입니다. 특히 병고역난 같은 괴로움은 더욱 그렇지요. 사람이 편하고 즐겁기만해서는 마음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은 늘 말씀드리듯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내가 지었던 것이 유전성 업 보성 영계성 등으로 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괴한다고 해결이 되질 않지요. 전자에 입력한걸 지우려면 다시 그 자리에 놓아야 하듯이 현실의 고통을 완결게, 진실되게 주인공자리에 되놓고 관해야 합니다. 샘물은 거기서만 솟아나니까. 잊지마세요.

### 마음도 쓰지않으면 썩는지요

문: 한마음 요전을 읽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썩게 된다는 말씀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썩기까지 하는지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답: 무엇하나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뉘며 돌아간다고 했지요.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다 남편노릇하고 아들 노릇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 노릇 안한다. 남편 노릇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버지고 아들이고 형제고 남편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집부린다면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그와 같습니다.

### 주인공과 생각의 차이점

문: 수행이 매사에 참고 견디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 때일 뿐 욕망이나 욕정에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것인가요? 주인공은 생각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선원에 나가면 쉽게 큰스님을 볼 수 있나요?

답: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 점이 있어야 하고 되돌아보면 놓고 관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놓았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견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놓고 관할때 놓고 관하는 마음이 내 부

도 없이 마구잡이로 팔대로 되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갖기는 갖되 거기에 착을 두지 말고 찰나찰나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잘지 말고 또 거기에도 착을 두지 말고 딱 치는대로 주어 삼키며 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 무생명 한자리에 있다는 뜻

문: 삼가 큰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어찌해서 그런 큰마음 큰 뜻으로 중생들을 제압하고 계시는지요... 감히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큰 뜻 헤아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진실을 알아만 하겠기에 주인공을 잡고 마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 갑니다...

답: 질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생명이 언제나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지요...큰스님... 참노를 한방울 흘릴수 있는 참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문: 멀리 보실것 없이 내 몸뚱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우물 거리고 있나? 우리 몸 속에 수십억 생명이 제각각 살면서 서로 돕고 한자리 하면서 연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체로서 공식하고 공용하고 공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공생이요, 또 어디 우리 몸뚱이 뿐입니까.

이 지구라는 별도 그렇고 이 우주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여여하며  
자성이 본래 만법바나  
나오는대로 놓고 놓아  
과거 현재의식 제함 때  
자심삼매라 이름니다

모든 별성들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먹고 지탱해 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 작각이라면 한시일도 공존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삼세가 다 한참나에 있고 삼천대 천세까지 나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으니 모두가 그냥 한자리요 한마음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생긴 건 제 각각이고 어제 오늘이 분명히 다르다하면서도 근본에 있어서는 틀이 아니니 이 도리를 알면 그냥 한도량 한자리이지요. 그래서 부처의 발은 광발이다 했습니다.

### 마음의 눈귀로 보고 듣는 법

문: 항상 큰스님의 말씀을 마음 지극히 믿고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보는 눈이 다른지요 어떻게 다른지요 주인공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의 귀로 듣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스님 법문에 마음의 귀로 들으라 하셨는데 그 뜻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주인공이 보는 눈이다. 마음의 눈이다 또는 귀없는 귀 눈없는 눈이다 하는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말로 하지니 여러가지 표현이 나온 거지요. 그건 뭐나하면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제일이다 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데 그 '나'라는 게 빠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 얽매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두를 그걸 모르니까 눈은 눈으로 보고 귀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걸 따지고 드는 것까지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세요. 이런 주인공이 듣는 걸까 내가 듣는 걸까 하지마시고 공평 주인공 뜻으로 들리고 다만 관하도록 하세요.

# 내몸같이 하나로 감싸 안을때 해탈 맛봐 그냥 나오는 족족 놓고 놓는게 바로 정진

### 자심삼매 성취하는 길

문: 경전을 보면 미륵보살이 과거생에 자심삼매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누구나 99% 부처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면 말입니다. 자심삼매란 나오는대로 놓고 또 놓아서 과거의식과 현재의식이 결합이 된 걸 말하는데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디 자심삼매 뿐이었습니까?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말하신걸 들어보셨는지요?

-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 자성이 본래 여여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 자성이 본래 만법을 듣고 밤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하는데 방향 안좋아 고민

문: 큰 스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가 분양되어 이사를 할러니 살고 있는 집이 처분이 안되어 못 가고 있는데, 같은 도반말이 방향이 안 좋아 못 가게 주인공 자리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백장 선사는 오백생을 뱀의 허물을 벗지 못하다가 어떤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순간 벗어 났다고 하셨는데, 저

부처마음인데 막기는 뭘 막는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는 거지 내가 한생각 돌려 터 놓고 말하는데 막고 말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귀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거고 내가 마구니 짓을 하면 마구니가 되고 그러는 것이 어디 귀신 마구니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일랑 마세요. 그리고 벗어나기 어디서 무릎 벗어 남니까. 이 몸뚱이는 때가 되면 갈아 입을 것이고, 본래로 누가 나를 붙잡아매지 않았는데 어디로부터 벗어남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벽을 쌓고 고정관념을 놓질 못해서 그렇지 고정관념의 벽을 스스로 허문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요.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인요. 백장선사의 법문을 듣고 벗어났다는 그분, 편에서 벗어난게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난 겁니다.

### 집되는 장애인 신세 괴로워요

문: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쓰는 것은 지금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나이가 30대이지만 저는 아직도 집에서 무위도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젠 많이 늙으셨고 호도 한번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제 자신이 지극한 비참해지고 하루, 하루가 지나가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짐만 되는 저

리에 당케될때 열심히 노력하세요. (첫째 주나 셋째 주 일요일에 정기 법회가 열립니다. 언제든지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 집안 어려워 공부 잘 안돼요

문: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하지 1년도 안된 25살의 여대생입니다. 그전에 다녔던 대학을 관두고 제가 다니고 싶어 했던 지금의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느라고 아직도 2학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어려워 거의 매일 아르바이트를 다니느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목표를 하고 있는 시험공부는 몇년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새는 지극 신경질이 나고 시험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영영 안 올것만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기에는 제 현실의 짐이 무겁습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답: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것도 법입니다. 정쟁을 하는데도 전전만 있는게 아니라 후퇴도 있습니다. 살기위해서 후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안되는 건 안되는 것대로 한생각 돌려서 놓고 되는건 되는 것대로 감사히 생각하며 놓고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목표를 갖지 말거나 계획

**합찬 주인공**